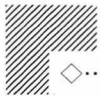


# “농축산물, 식량안보차원에서 절대 개방불가”

## UR항의차 미국 방문하고 돌아온 기독교농민회 최병상 사무국장

취재 : 박진규 기자



◇...최근 UR협상시한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우리 농민과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국내NCC(한국교회 협의회)가맹교단과 비가맹교단의 12개교단 대표들이 공동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8일간 미국을 방문하여 UR협상에 대해 항의를 하고 돌아왔다.

UR협상으로 농축산물이 수입개방되면 우리 농촌은 몰락하게 되고, 농촌이 몰락하면 농촌에 기반을 둔 교회도 함께 몰락한다는 생각으로 모인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번 미국방문중 미국 정부 관계자와 상·하의원 및 농업·기독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식량자급은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이 걸린 문제」로 「앞으로 계속 미국이 수입개방을 강요하면 한국의 농민뿐 아니라 기독교인들마저 반미감정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 정부간에 이루어지는 협상내용에 한국교회는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일행중 기독교 농민회의 최병상 사무국장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셨는데 미국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농촌의 몰락은 국민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

**최사무국장** : 현재 우리농촌을 가보면 빈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연령도 점점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농촌은 전부 몰락하게 될 것이고 그

렇게 되면 우리는 생존권마저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위급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촌이 공업지대가 되면 다시는 농촌으로 돌아갈 수 없어 식량이 무기가 되어 우리 앞에 되돌아 올 것입니다.

또한 농촌이 몰락하게 되면 농촌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몰락하게 된다는 공동인식하에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가셨던 일행은?

**최사무국장** : 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의 김상곤 목사를 비롯한 NCC가맹교단과 비가맹교단의 12개교단의 대표들로 한국교회 사상 최초로 한국의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어떤일을 하고 오셨는지요?

## UR협상 타결 반대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최사무국장** : 미국의 연합감리교 지도자와 NCC지도자들과 만나 상호 활동내용을 교환하고 UR협상에서 농산물분야는 제외시켜야 한하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미농무성 외국농업부 알란 험펠 아시아 담당국장과의 만나 우리농촌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무역통상대표부 칼라힐즈의 보좌관, 동아시아 담당 솔라즈 하원의원의 보좌관 등과의 만나 UR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를 제외시키지 않으면 한국의 기독교인·농민과 미국내의 UR반대 기독교인·농민과 단결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의 농민운동단체와 기독교단체 관계자들과도 만나 서로의 견해가 같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미국내에서 UR협상과 한국을 보는 입장은 어떤지요?

**최사무국장** : 크게 두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정부측의 입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국이 많은 협조를



▲ 최병상 사무국장

했으므로 한국도 미국에 협조해야 하며, UR협상에서 농산물 부문을 빼면 쌍무협정에 의해 한국에 더욱더 불리하게 될 것이며, 한국농민의 어려움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고, 미국의 농민·기독교단체 관계자들은 UR협상이 타결되어도 미국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이익을 보는 것은 다국적 곡물기업들로 UR협상이 타결되면 오히려 미국농민도 몰락하게 되고 환경보호차원에서 UR협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의 미국농업도 순 농업소득인구가 60만명으로 작년에 10만 농가가 파산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어 앞으로 계속적으로 몰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농축산물 먹기운동 등 국민스스로의 자각이 필요

**최사무국장** :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농업의 희생을 감수하며 세계경제의 대세에 합류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보호와 식량안보는 민족자주권수호의 필수적 전제로 한국교회는 앞으로 계속 UR협상 반대운동과 우리 농축산물 먹기운동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모든 활동이 의회를 중심으로 대의회 로비를 통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우리의 뜻을 의회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